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487>

JCCT 2023-5-56

##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Factors Affecting Academic Resilience of Nursing Freshmen

이주영

Lee, Joo Young

**요약** 이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와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업탄력성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2년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조사하여, 205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WIN 25.0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평균은 2.61점이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14점, 학업탄력성의 평균은 2.36점으로 나타났다. 학업탄력성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r=.573$ ,  $p<.001$ ),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적 대처( $r=.305$ ,  $p<.001$ ),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r=.321$ ,  $p<.001$ ), 소망적 사고 대처( $r=.344$ ,  $p<.001$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beta=.498$ ,  $p<.001$ ),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beta=.203$ ,  $p=.001$ ), 전공만족도( $\beta=.117$ ,  $p=0.034$ )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4.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간호학과 신입생,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tress coping, and academic resilience among freshman nursing students, and investigate the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stress coping on academic resili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5 to March 26, 2022, using 205 questionnaires that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5.0.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ore of the participants was 2.61, the average stress coping score was 2.14, and the average academic resilience score was 2.36. Academic resilience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 $r=.573$ ,  $p<.001$ ), problem-focused coping ( $r=.305$ ,  $p<.001$ ), seeks social support coping ( $r=.321$ ,  $p<.001$ ), and hopeful thought coping ( $r=.344$ ,  $p<.001$ ). The variables that affected academic resilience wer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 $\beta=.498$ ,  $p<.001$ ), seeks social support coping ( $\beta=.203$ ,  $p=.001$ ), and major satisfaction ( $\beta=.117$ ,  $p=0.034$ ),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44.8% of the variance in academic resilience. Therefore, to enhance academic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mote ac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Key words** : Freshman in Nursing,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tress Coping Method, Academic Resilience

\*정회원,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제1저자)  
접수일: 2023년 4월 26일, 수정완료일: 2023년 5월 6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10일

Received: April 26, 2023 / Revised: May 6, 2023

Accepted: May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jylee7645@jwu.ac.kr

Dep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Korea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OECD DeSeCo 이후 교육기관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기반 교육을 도입하며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윤리의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학습과정을 만들어가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 간호교육도 병원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간호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역량과 성과 중심의 교육과정의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많은 대학생들은 학습하는 동안 스트레스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데, 간호학과 학생들은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2]. 이는 높은 정서적 책임, 힘든 시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 고된 업무, 불리한 임상 경험, 시간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3].

힘든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힘이 존재하는데, 이는 학업탄력성으로 학업 중 발생하는 학업적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성공적인 학업성취나 학교적응과 같은 긍정적인 학업을 이루는 능력을 말한다[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업 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만족과 전공만족이 높게 나타났고[5, 6], 임상현장에서도 원만하고 재빠르게 적응하였고, 임상실습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과제부담, 대인관계 갈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7]. 특히 간호학과 1학년생들은 생명의 존엄성, 간호 전문직관, 전공 기초교과목의 생소함과 과중한 학습량으로 부담을 느낀다[8].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학업 탄력성을 높이면 긍정적인 학업발달 뿐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 및 더 나아가 임상현장에서의 적응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어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학업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교수자의 도움과 상관없이 스스로 학습목적을 설정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학습을 능력 수준에 맞도록 조절한 후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9]. 대학 신입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아오다가 성인학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10]. 특히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은 전공기

초교과목을 수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도있는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업탄력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따라서 학업탄력성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업적 스트레스와 교내 실습 및 임상실습 등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간호학과 3, 4학년은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임상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12], 간호사에게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영향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13]. 또한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할수록, 소망적 사고를 통한 대처를 적게 할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14]을 보아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대학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자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규명하여 이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탄력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여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를 알아보고,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알아본다.
- 대상 간호학과 신입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선택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의 차이를 알아본다.

- 대상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학업탄력성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파악하고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5일부터 동년 3월 26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이며 연구 종료 후에는 폐기할 것을 명시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예측요인 12, 효과 크기는 중간 수준인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표본 수는 184명으로 중도탈락을 고려하여 21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208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부를 제외한 205부(97.6%)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Guglielmino가 개발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측정 도구를 Park이 수정·보완한 총 39문항 도구를 사용하였다[15]. 이 도구는 7개의 하위 영역인 탐구적 특성, 독창적 접근, 자발적 계획, 미래 지향성, 학습에 대한 사랑, 학습 책임성, 학습자적 신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alpha$ 값은 .91이었고[1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91이다.

#### 2) 학업탄력성

학업탄력성은 Kim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조절(5문항), 친구지지(5문항), 부모지지(4문항), 자기통제(6문항), 긍정적 태도(5문항), 과제책임감(4문항)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16].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2이었고[1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37이다.

####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Folkman & Lazarus가 개발하고 Park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영역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 정서적 대처방식,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 등 4개의 영역으로 각각 6개 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17].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k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고[17],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88이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학업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학업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1에서와 같이 연구대상자는 전체 205명으로 성별은 여자가 172명(83.9%)이었고, 연령은 20세 이하가 174명(8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주 형태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이 115명(56.1%)로 가장 많았

다. 입학동기는 취업이 잘 되어서가 75명(36.6%), 적성에 맞아서가 70명(34.1%)로 두 가지의 요인이 대부분이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상이 134명(64.5%), 보통이 61명(29.8%)로 보통 이상의 대상자가 약 95%이다.

도에 ‘보통’으로 답한 학생들이 2.50±0.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만족’에 답한 학생과 ‘만족’으로 답한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F=6.771, p<.001).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도 일반적인 특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Table 1. Academic resilienc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Stress Coping Metho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05)

Variables	Categories	n(%)	Academic resilienc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tress Coping Method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33(16.1)	2.38±0.42	1.161 (.251)	2.60±0.33	1.875 (.071)	2.03±0.38	-1.659 (.104)
	Female	172(83.9)	2.28±0.52		2.49±0.37		2.15±0.36	
Age	≤ 20	174(84.9)	2.28±0.54	-1.170 (.074)	2.53±0.38	2.219 (.030)	2.10±0.36	-2.561 (.014)
	≥21	31(15.1)	2.40±0.32		2.41±0.25		2.27±0.33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34(16.6)	2.31±0.60	0.195 (.900)	2.43±0.38	0.696 (.556)	2.21±0.33	1.296 (.277)
	Catholic christian	27(13.2)	2.23±0.43		2.50±0.28		2.20±0.31	
	Buddist	12(5.9)	2.32±0.59		2.48±0.32		2.13±0.39	
	No religion	132(64.4)	2.31±0.50		2.53±0.38		2.09±0.37	
Place of residence	Home	87(42.4)	2.34±0.45	0.457 (.634)	2.57±0.29	2.978 (.053)	2.17±0.30	1.153 (.318)
	Dormitory	115(56.1)	2.27±0.56		2.46±0.41		2.10±0.41	
	Rented room	3(1.5)	2.30±0.20		2.75±0.21		1.97±0.02	
Motivation of entrance	Wanted	70(34.1)	2.32±0.44	0.796 (.529)	2.62±0.29	0.689 (.600)	2.13±0.24	0.674 (.611)
	Corresponding to score	6(2.9)	2.57±0.40		2.79±0.30		2.29±0.23	
	Job opportunity	75(36.6)	2.37±0.48		2.61±0.29		2.14±0.27	
	Recommendation of other	38(18.5)	2.34±0.45		2.57±0.34		2.12±0.24	
	The others	16(7.8)	2.57±0.28		2.58±0.35		2.18±0.28	
Satisfaction of Major	Very satisfaction <sup>a</sup>	59(28.8)	2.15±0.44	6.771 (<.001) (a<b, a<c)	2.50±0.31	4.401 (.005) (a<c)	2.08±0.24	1.798 (.131)
	Satisfaction <sup>b</sup>	75(36.6)	2.39±0.46		2.64±0.29		2.14±0.24	
	Moderate <sup>c</sup>	61(29.8)	2.50±0.41		2.68±0.29		2.19±0.26	
	Dissatisfaction	10(4.9)	2.32±0.31		2.51±0.26		2.14±0.29	
	Very dissatisfaction	0(0.0)	-		-		-	

2. 대상자의 학업탄력성,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표 2와 같이 학업탄력성의 평균은 최대 5점 중 2.36±0.45점이고,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평균은 최대 5점에 2.61±0.30점이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최대 4점에 2.14±0.25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표 1에서 학업탄력성은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만족

성 중 전공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보통’으로 답한 학생들이 2.68±0.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만족’이라 답한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4.401, p=0.005).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4.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표 3과 같이 학업탄력성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r=0.573, p<0.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문제중심적 대처(r=0.305, p<0.001), 사회적지지 대처(r=0.321,

표 2.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학업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수준

Table 2.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cademic resilience and Stress Coping Method (N=205)

변수	M±SD	Range
Academic resilience	2.36±.045	
Learning regulation	2.44±.056	1-5
Peer support	2.34±0.59	
Self control	2.21±0.55	
Positive attitude	2.47±0.56	
Task responsibility	2.32±0.58	
Parental support	2.43±0.74	
Self-Directed Learning	2.61±0.30	
original approach	2.63±0.39	1-5
exploratory characteristics	2.53±0.46	
voluntary plan	2.67±0.33	
Learning responsibility	2.85±0.43	
Love of Learning	2.61±0.43	
future-oriented	2.56±0.54	
learner beliefs	2.42±0.57	
Stress Coping Method	2.14±0.25	
Problem-focused coping	2.10±0.34	1-4
Seeks social support coping	2.09±0.38	
Emotion-focused coping	2.36±0.39	
Hopeful thought coping	2.01±0.36	

p<0.001), 소망적 사고 대처(r=0.344, p<0.001)은 학업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정서중심적 대처(r=-0.064, p=0.182)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업탄력성과 전공 만족도(r=0.256, p<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3. 학업탄력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공만족도 간 상관관계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cademic Resilience, Stress Coping Method, Satisfaction of Major (N=205)

	Academic resilienc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tress Coping Method			
			Problem-focused coping	Seeks social support coping	Emotion-focused coping	Hopeful thought coping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0.573*	1				
Stress Coping Method	Problem-focused coping	0.305*	0.227**	1		
	Seeks social support coping	0.321*	0.046 (.258)	0.302*	1	
	Emotion-focused coping	-0.064 (.182)	-0.229**	0.165**	0.330*	1
	Hopeful thought coping	0.344*	0.223**	0.185**	0.443*	0.249*
Satisfaction of Major	0.256*	0.172**	0.191**	0.141***	-0.019 (.397)	0.070 (.162)

\* p<0.001, \*\* p<0.01, \*\*\* p<0.05

5.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공만족도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업탄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전공만족도를 포함하여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규성과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여 회귀분석의 조건 충족을 확인하였으며, Durbin-Waston은 2.128로 독립변수 간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오차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는 .737~.937으로 0.1을 초과했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068~1.357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beta=0.498, p<.001$ ),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적 지지 대처( $\beta=0.203, p=0.001$ ), 전공만족도( $\beta=0.117, p=0.034$ )이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4.8%이다.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학과 신입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최대 평점 4점에 대해 2.14점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정서적 대처가 가장 높았으며,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수 있기 때문에 신입생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제공

표 4. 학업탄력성의 영향요인

Table 4. Predicting factors of Academic resilience

(N=205)

Dependent Variable	Predictor Variable	B	S.E	$\beta$	t	P	VIF
Academic resilience	(Constant)	-0.767	0.255		-3.001	0.003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0.746	0.085	0.498	8.824	0.000	1.130
	Stress Coping Method						
	Problem-focused coping	0.113	0.076	0.086	1.491	0.138	1.177
	Seeks social support coping	0.245	0.074	0.203	3.289	0.001	1.357
	Hopeful thought coping	0.148	0.076	0.119	1.952	0.052	1.312
	Satisfaction of Major	0.063	0.029	0.117	2.138	0.034	1.068

F=31.788(p<.001), R<sup>2</sup>=.448, adjR<sup>2</sup>=.434, D-W=2.128

Kang과 Choi[14]의 연구에서는 2.53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Lim과 Yeom[13]의 연구에서는 2.6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점수보다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의 점수가 더 높았으나 신입생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소극적 대처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대처방식인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18].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적극적 대처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최대 평점 5점에 대해 2.61점을 나타냈고, 하위영역에서는 학습책임성이 가장 높고, 자발적 계획, 독창적 접근, 학습에 대한 애착, 미래지향적, 탐구적 특성, 학습자적 신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을 측정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나 3학년을 조사한 Kim[19]의 연구에서는 평점이 3.44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고, Lee와 Kim[20]의 연구에서도 평점 3.58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입생들은 대학 수업 과정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노출된 경험이 없어 스스로의 학습을 어려워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학습과정에서 처음부터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21].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차이가 있는 것(F=4.401, p=0.005)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고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할

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탄력성은 최대 평점 5점에 대해 2.36점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771, p<.001). 하부영역 점수를 보면 긍정적 태도의 점수가 가장 높고, 학습조절, 부모의 지지, 친구지지, 과제책임감, 자기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아닌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22]. 신입생의 경우 긍정적 태도와 학습조절, 부모의 지지가 높은 것은 입시 준비의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부모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부 방식 중 문제중심적 대처(r=0.305, p<0.001), 사회적지지 대처(r=0.321, p<0.001), 소망적 사고 대처(r=0.344, p<0.001), 일반적 특성의 전공만족도가 학업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 중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부영역 중 사회적지지 대처(r=0.321, p<0.001), 전공만족도는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g[11]의 연구에서도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학업탄력성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대인관계능력을 매개로 학업탄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위기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자발적 계획, 학습 책임성 등의 하부영역이 학업탄력성의 학습조절, 자기 통제, 과제 책임감 등의 하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탄력성을 증강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적 대처가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탄력성은 역경이나 위협에 노출되더라도 바람직한 적응을 보이는 현상으로 다양한 학문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는데 교육에 적용되어 만들어진 이론 중 하나가 학업탄력성이다[23]. 위 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적응을 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를 보면 이 두 변인간에는 양적 상관관계가 있으며[25],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양적 상관관계가 있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26].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대학생활적응[14], 임상수행능력[12], 의사소통능력[13]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앞으로 학업적 부담이 크고 실습 등의 스트레스를 받을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과 적응과 원활한 학습발달을 위해서는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과 적응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등 학과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 V.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탄력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학업탄력성은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

식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학습능력과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1개 학교의 신입생이 대상이므로 모든 간호학과 의 신입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어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와 본 연구를 근거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Cha J. M.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plan of competency-based major curriculums development and accreditation: Case of H University; Focusing on the professor's experien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6, pp. 497-519, 2023.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6.497>
- [2] Labrague L. J., McEnroe-Petitte D. M., Papatthanasiou I. V., Edet O. B., Tsaras K., Leocadio M. C., Colett P., Kleisiaris C. F., Fradelos E. C., Rosales R. A., Vera SantosLucas K., and Velacaria, P. I. T.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nursing students: An international study" *Journal of Mental Health*, Vol. 27, No. 5, pp. 402 - 408, 2018. DOI: <https://doi.org/10.1080/09638237.2017.1417552>
- [3] García-Izquierdo, M., Ríos-Risque, M. I., Carrillo-García, C., & Sabuco-Tebar, E.d.l.' A. "The moderating role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the perception of psychologic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Vol. 38, No. 8, pp. 1068 - 1079, 2018. DOI : <https://doi.org/10.1080/01443410.2017.13>
- [4] Park J.Y. and Kim N. L.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academic resilience scale for non-traditional Student"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 15, No. 3, pp. 215-239, 2009.
- [5] Kang M. K. "Effect of self-leadership, academic resilience 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5, pp. 447-465, 2020.
- [6] Kim H. J. and Lee Y. M. "The influence of optimism and academic resilience on the major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0, No. 1, pp. 692-700, 2020.
- [7] Hwang E., and Shin S.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with high levels of academic resilience: A cross-sectio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 71, pp. 54-59, 2018. DOI: <https://doi.org/10.1016/j.ne>

- dt.2018.09.011
- [8] Shin, S. "Influence from the academic stress by the achievement pressure of their parents and adjustment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1, pp. 6756-6766, 2014.
- [9] Lee S. J.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Jinc heon. 2003.
- [10] Park J. Y. "Prediction of Students' Self-leadership on Learning Satisfaction :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7.
- [11] Jeong M. H.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cademic resilienc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attitud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10, pp. 237-253, 2022. DOI :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0.237>.
- [12] Lee K. E. and Hong J. Y. "Effects of empathy, caring efficacy and stress coping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24, pp. 1251-1270, 2020.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4.1251>.
- [13] Lim S. M. and Yeom Y. R.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Method,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atitude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Competen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2, No. 3, 75-84, 2022. DOI:<https://doi.org/10.22156/CS4SMB.2022.12.03.075>
- [14] Kang H. Y. and Choi E. Y. "Stress, Stress Coping Methods,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Behavioral Styles in Freshm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 289-297,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3.289>
- [15] Park J. Y. "Study on the Self-Direction of Adult Learners in the Enterpri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1998.
- [16] Kim N. R.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scale of academic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8.
- [17] Park J.Y.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type A & B ego-identity and stress cop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1995.
- [18] Yoon H. S., Hwang Y. M., Kim D. B. and Jang S. W. "The effects self-differentiation stress coping methods and mental health on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Vol. 10, No. 2, pp. 1-25, 2011.
- [19] Kim Y. S. "Effect of Flip Learning-based community nursing education o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related self-direction,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learning satisfac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4, pp. 311-324, 2023.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3.23.4.311>.
- [20] Lee S. Y. and Kim Y. Y.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309 - 318,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3.309>.
- [21] Jang K. S., Kim E. A. and Kim N. Y.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tion liter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5B, pp. 2823-2835, 2015.
- [22] Shin S. J. and Hwang E. H. "Effects of Academic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Vol. 20, No. 3, pp. 156-163, 2018.
- [23] Choi Y. S. "Academic resilience : the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8, No. 2, pp. 57-85, 2022.
- [24] Barrett C. and Myrick F.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7, No. 2, pp. 364-371, 1998.
- [25] Min E. S.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ication* Vol. 13, No. 1, pp. 71-78, 2018. DOI : <https://doi.org/10.15715/kjhcom.2018.13.1.71>
- [26] Hwang H. J. "The Effect of clinical nurses' self-leadership and stress-coping type on resilien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8, pp. 679-691, 2021. DOI :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8.679>.